

정은경 장관, 아동이 바라고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듣다

- 복지부, 아동단체 및 아동들과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5일(목)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세이브더칠드런 대표 겸임)을 비롯한 4개 아동단체 대표자 및 5명의 아동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 (아동단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대표자 겸임),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아동위원) 아동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 아동 단체가 추천한 아동대표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위촉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12월 발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아동단체 대표와 아동위원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 3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참석자들에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아동정책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동 기본계획을 아동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어 아동단체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과제,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주요 제안내용

- (아동단체)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사각지대 관리,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강화, 아동 마음건강 지원 등
- (아동위원) 아동의 정책 참여 활성화, 아동의 온전하게 쉴 권리, 혐오표현으로부터 아동 보호,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사교육 부담 경감 등

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바람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아동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아동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 아동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동단체 및 아동 대표 간담회

<별첨>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설명 자료(아동용)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410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신자	044-202-3415



□ 일시 : 2026. 2. 5.(목) 12:00 ~ 13:30

□ 장소

○ 서울 광화문 회의실

□ 내용

○ 새해 시행되는 아동정책 소개(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포함), 아동단체와 정부간 협업 방안, 아동단체 및 아동들의 정책 제안 등 논의

□ 참석자 : 총 14명 내외

○ (복지부) 장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 (아동단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오 준 이사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황영기 회장), 굿네이버스(김웅철 사무총장 대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조미진 사무총장 대참)

○ (아동위원) 임태은(중1), 정하린(중2), 정원영(중2), 정인서(고2), 임원호(고2)

□ 세부 일정 : 약 1시간 30분

시 간	소요(분)	주요 내용
12:00 ~ 12:10	10'	참석자 소개 및 인사
12:10 ~ 13:20	70'	2026년 아동정책 소개 아동단체와 정부간 협업 방안, 정책제안 등 논의
13:20 ~ 13:30	10'	마무리 인사 및 기념 촬영